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3. 17. / (총 8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성 창 현 윤 민 수	전 화	044-202-3803 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679 044-200-2295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	팀 장 담 당 자	김 금 찬 손 태 중	전 화	043-719-9200 043-719-921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충 환 이 정 애	전 화	044-202-3210 044-202-32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입국절차 시행(3. 19., 0시~)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별로 검역 강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 또한 국민의 마스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조치들을 검토하여, 이 중 실효성 있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에 대하여 심층 논의를 하였다.
- 결정 내용은 교육부에서 오늘 14시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 ☐ 정세균 본부장은 신학기 개학 연기 안전을 보고받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 ☐ 정부는 3월 19일(목)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3월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3,350*명(선박 포함),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으며,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 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 입국자 13,350명 (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 >

현행	확대 (3. 19. 0시부터 적용)
아시아 5개국(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 ※ 두바이 등 경유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

-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 사례*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입국자 검역결과) 3.13. 확진자 1명, 3.14. 확진자 3명, 3.15. 확진자 2명 발생

- 이에 따라 3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 또한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하여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 아울러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하여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께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3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로부터 성남시 소재 은혜의 강교회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특히, 여럿이 모이는 종교 집회와 관련하여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4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관세청(청장 노석환)으로부터 3월 16일(월) 전달 받은 몰수 마스크 1만5000여 장*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이미 관세청으로부터 몰수 마스크 4만4000여 장을 무상 전달* 받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 계층에 지원한 바 있다.

* 관세청은 압수한 마스크 중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4만4000여 장을 지난 2월 18일부터 여섯 번에 걸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에 무상 전달

5 마스크 수급 동향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9.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10.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1.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홍보자료

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및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허위정보 등 주요 사례 >

< 133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2. 26.) >



코로나19 상담원에 "시X XX아"...물상식한 장난전화 / YTN

▲ 1339에 장난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유튜브 영상 게재(2. 26.)

→ 구글 통해 해당 영상 삭제, 경찰청 수사 의뢰

< 중국인 유학생 도시락 관련 허위정보 페이스북 등 게시(3. 1.) >

중국 유학생들에게 제공된 도시락
문재인 이름과 청와대문양이 그려져있다
대구에 묵숨알고 달려간 우리의료진들은
심지어 숙소마저 자비로 해결하라고
방호복 대신 가운을 입으라 권한다
우리 의료진들에겐
너무고마워 어쩔 줄 모르며...
대구시장상인들이
도시락을 준비해 줬다한다ㅠ



▲ (도시락 사진) 중국 유학생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주장

→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제공된 도시락

▲ (대구 의료진 처우 관련) 의료진 숙소 등 자비 해결하고 있으며, 방호복 대신 가운 착용 권고하였다고 주장

→ 지자체 지원팀 구성, 숙소 등 불편 없이 지원, 경제적 보상 등 충분한 예우지원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마련

→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가능, 2.18. 이후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개 지원 (3. 1. 기준)

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역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